

(첨부)

##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22-28)

### 1 경제일반

#### 1. 일본정부, 대(對)중국 정부개발원조(ODA) 종료의사 표명

- 일본 정부는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대중 ODA를 종료하고, 일중 양국 간 새로운 협력기제로서 ‘개발협력대화’ 신설 및 제3국 개발원조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 아베 총리는 방중 계기 약 40년 지속되어 온 대중 ODA를 종료할 방침을 전달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일본 ODA의 공헌을 높이 평가함. 양 정상은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추진에 합의함.
  - ※ 아베 총리는 10.25(목) 일중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 기념리셉션에서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對中ODA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하면서 제3국에서의 일중간 협력 추진을 언급
- (일본의 대중 ODA 연혁 및 종료사유) 일본은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1979년 이래 약 40년간 엔차관·무상원조·기술협력 방식으로 3.6조엔 상당의 ODA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 학교건설 및 감염병 대책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대중 ODA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다수 제기되어 2007년 신규 엔차관 공여는 종료되었으며,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DP를 기록,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대중 ODA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증가한 것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
- (향후 계획) 일 정부에 따르면 개발원조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발전한 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개발협력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개발협력대화’를 신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또한 배제하지 않고 제3국 대상 ODA 협력파트너로서 ODA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임.

### 2. Connected Industries 진행상황과 향후과제

- 경제산업성은 지난 10.16 CEATEC JAPAN 2018\* 계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7.10월 발표한 Connected Industries의 전체 활동성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민 조직의 진행상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함.

#### 1. 경위

- 17.10월 도쿄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각 분과회를 통해 액션플랜을 검토·책정하였고 현재 현재 액션플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

#### 2. 각 분과별 진행현황 및 향후 방향성

- 경제산업성은 지난 10.16 CEATEC JAPAN 2018\* 계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7.10월 발표한 Connected Industries의 전체 활동성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민 조직의 진행상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바, 각 분과별 진행현황 및 향후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자동주행분과:** 현재 안전성에 관한 기술력,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 활용 및 AI 시스템 개발에 주력중으로, 향후 △데이터 수집, 이용, 활용 및 △AI 시스템 개발 추진 예정
- **모노즈쿠리, 로봇틱스 분과회:** 현재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활용 극대화, △국제표준화사이버시큐리티 등 논의 추진
- **바이오·소재 분과회:** 소재분야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혁신적 바이오소재·고기능품 개발, △산관학 연계의 강화, △제품·미활용 기술데이터 공유 등 추진

- **플랫폼·인프라보안 분과회:** 정유·석유화학업계의 데이터 공유 관련 공동과제의 해결과 스마트 보안기술 수출 등의 해외 전개를 실시중이며, 향후 △데이터 이·활용 강화, △해외진출 등 추진 예정
- **스마트라이프 분과회:** 현재 생활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개호 등의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중이며, 향후 △다양한 사례 창출, △사업자간 연계요건 심화 등 추진 예정

##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3. 일본정부 10월 월례경제보고 발표

- 일본정부는 10월 월례경제보고를 발표함. 태풍 상륙에 따른 간사이 공항 폐쇄 영향 및 중국 수출용 스마트폰 생산 부진 등을 이유로 10월 국내 경기판단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음’으로 유지(10개월 연속)
- 수출은 ‘최근 회복세에 담보상태가 보임’에서 ‘대체로 보합세’로 2개월 만에 하방수정되었으나, 그 외 항목은 전월 판단을 유지함. 수출전망은 해외경기의 완전한 회복을 배경으로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도, 무역전쟁 등 통상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세계전체 경기판단은 ‘완전히 회복하고 있음’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서 ‘회복 움직임에 담보상태가 보임’으로 3년 3개월 만에 하방수정함.
- 기업의 체감경기는 계속 양호하나, 자연재해의 영향 및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근 체감경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

## 3 대외경제 동향

### 4. 아베 총리 방중 관련 경제분야 성과

#### 가. 경제분야 주요 성과

##### (개요)

- 아베 총리의 금번 방중(10.25-27)을 통해 제3국시장 개척 관련 합의된 사업은 52건, 사업금액은 200억달러(약2조 2천억엔)에 달함.
- 협력 사업 내용 중 중국이 표방하는 산업근대화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광역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 분야가 눈에 띈.

##### (‘일중 이노베이션협력대화’ 신설 합의)

-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AI 등 이노베이션 분야의 첨단기술 교류와 지적재산보호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는 ‘일중 이노베이션협력대화’ 신설에 합의

##### (‘일중 산업장관대화’ 개시)

- 일중 양국은 제조업, 정보산업 교류와 협력에 관한 장관급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 (금융 협력)

- 양국 중앙은행은 일중 양국간 통화교환(스와프)협정 재개에도 합의하였으며, 상한은 3조 4천억엔(위안화 상한은 2천억위안)에 달하며, 일본기업의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환경 정비가 기대됨.
- 양국은 증권시장 관련 포괄협력에 합의하였으며, 감독당국과 시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중 증권시장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실무협력을 하고, 상장투자신탁(ETF)의 상호 상장도 목표로 할 예정임.
- 중국은행 동경지점이 위안화결제를 담당하는 ‘Clearing(결제) 은행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위안화표시 투자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 (세관 협력)

- 일중 양국은 무역의 안전확보와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認定) 사업자에 대한 세관절차 간소화(AEO)를 인정

#### (동중국해 가스전)

- 일중 양국은 협상이 중단된 동중국해의 가스전 문제 관련 공동개발에 관한 2008년 합의를 완전하게 견지해 가기로 확인함.

####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조치 관련)

- 일측은 금번 일중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의 일본산식품 수입금지조치 완화를 기대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중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평가에 기초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중국은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센 중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
    - ※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는 10.26 아베총리와 의 회담에서 각각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 나. 제3국에서의 협력 추진 배경

- 일중 양국이 제3국에서의 협력을 추진한 배경에는 신흥국 개발에 있어 중국과 협조하여 일본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과, 일본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지원 분야에서 신흥국의 대중 경계심을 완화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측면이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를 표방하며 신흥국 개발에 거액을 투자해왔으나, 국유기업 등이 일제히 신흥국 개발에 나선 결과 불필요한 공공투자와 채산성을 무시한 계획이 난무하여 지원대상국이 재정난에 빠지는 케이스가 속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 중

#### 라. 미중 무역마찰 관련 언급

- 시진핑 주석은 '함께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견지하며, 개방적인 세계경제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고 언급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대항조치의 응수는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 미중 양국이 대화를 통해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 고 언급

#### 마. 일중 기업간 협력 안전

- 파나소닉은 중국의 인터넷 검색기업인 바이두와 차세대 차량탐재 시스템을 공동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바이두의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사용하여 차내에서 음악과 영상을 음성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 예정
-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중국개발은행(CDB) 등이 연계하여 협조용자 틀을 정비
- 일본 SOMPO 홀딩스와 중국재보험집단은 제3국시장 개척 등에서 협력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중국 태평양보험과 제3국에서의 영업협력과 관련한 포괄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태평양보험의 중국 내 판매망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보험판매 분야에서 태평양보험을 지원할 예정

/끝/